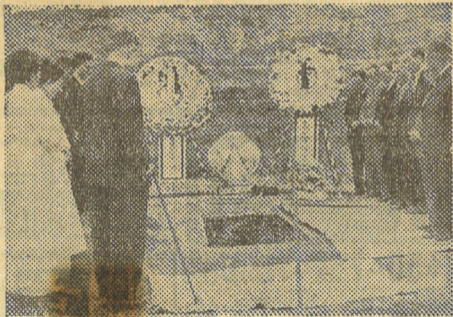


1966. 11. 12.
 古下 宋鎮禹先生 墓
 芝香山에 遷葬



<古下선생 遷葬식 광경>

계인사들이 참석, 선생의 유덕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. 선생의 유해는 그동안 잊어버린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는데 선생의 유덕을 추모하는 각계인사들이 이를 송구하게 생각, 이번 천장하게 된 것이다.

동아일보
 항일운동과 민족언론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古下宋鎮禹 선생의 묘소가 11일 오후 忘憂里공동묘지에 서 永登浦구新亭동 芝香山양지바른 기슭으로 천장(遷葬)되었다. 古下선생의 장남 宋英洙(55)씨 등 유족과 崔斗善(전국무총리)·高在旭(東亞日報사장)·金相万(동부사장)·金俊淵(국회의원)·柳鴻(국회의원)씨등 각